

[ 前 대통령 서거 ]

# 사상 초유의 일...정국 혼돈 불 보듯

## 與野 '동정론' 등 민심향배 촉각

### 향후 정국 파장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향후 정국은 격랑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시 조성한 비자금 등과 관련해 퇴임 후 구속되는 등

우리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수난'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칼날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참여정부는 물론 현 야권까지 거세게 몰아붙이던 여권은 거센 역풍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민주당 등 야권은 공세를 강화하며 정국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종료를 선언했지만 '박연자 게이트'를 둘러싸고 야권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민주당은 그동안의 내분에서 벗어나 단일대오를 형성, 여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기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가 지난 2004년 3월 탄핵 정국 때와 같이, 범 진보세력의 단합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 당분간 외부일정 줄이고 '애도기간'

### 청와대 반응

청와대는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전해지자 이명박 대통령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회의,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잇달아 갖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의 사고 소식이 청와대에 처음 보고된 것은 발생 20분만인 오전 7시 전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중 경호처장은 봉하마을 현지 경호팀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한 뒤 오전 7시 20분께 관저에서 한·EU(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서거를 애도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근조' 게시문을 올렸다. /임동욱 기자 tuim@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 문제가 향후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6월 임시국회는 별개 문제며 광집법안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여권이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광집법안들을 수석우위를 내세워 밀어 붙여온다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동정론이 맞물리면서 여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는 점도 여권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붙이기에는 어려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설 경우 '국가적 불행'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가적 불상사에 대해서는 '애도'와 '비통' 모드로 유지하며 민심을 다독이는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후 형성된 여론을 토대로 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추후 정국을 좌우할 전망"이라며 "여야는 당분간 국민여론을 주시하며 향후 정국 운영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차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문희상 국회 부의장과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승수 국무총리(오른쪽)가 23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으나 노사모 회원들의 조문 거부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문재인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결국 조문을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연합뉴스

### 이회창 '계란세례' 정동영에 "배신자"

## 정치인 조문 줄줄이 퇴짜

### 盧 인생역정

### 상세히 보도

#### 외신들 일제히 긴급 타진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관을 바꿨고, 대중을 실망시켰다"

로이터와 영국의 BBC 방송 등 주요 외신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잇따라 별도의 부고 기사나 인물 기사를 내보내고 그가 걸어온 정치 역정을 집중 조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인물 기사인 '뉴스메이커'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거리로 나섰던 세대의 투사로서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실패한 지도자로서 이를 뵈셔시키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통신은 '노 전 대통령은 정치관을 바꿨고, 대중을 실망시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독학의 변호사이던 노 전 대통령에게 가장 빛났던 순간은 지난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였다"고 꼽았다.

BBC 방송은 인터넷판에 부고 기사를 싣고 "노 전 대통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물로, 그의 행정부는 스캔들과 내분이 끝없이 이어졌다"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노 전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권위주의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 개혁가"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명백한 정치적 탄핵" 친노 진영 격앙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듣고 시신이 안치된 김해 봉하마을로 잇따라 달려온 측근들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비통해 했다. 일부 인사들은 현 정권의 무리한 수사가 조례한 사실상의 '정치적 탄핵'이라며 검찰과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내 상춘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도 참석했으나 당초 예정됐던 견배사는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근조' 게시문을 올렸다. /임동욱 기자 tuim@

참여정부에서 건교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고난이나 탄압 등에는 굴복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내세워왔던 청렴, 명예, 개혁 등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짓밟히자 이를 견디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 사무총장을 지낸 염동연 전 의원은 "안타깝고 착잡하다. 정신이 나갈 지경이다"며 안타까워했다. 노사모를 이끌었던 명계남 씨는 "기자들은 모두 다 이곳(봉하마을)에서 다 나가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시신까지 언론의 먹이감을 만들려 하느냐"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박정옥기자 jwpark@

